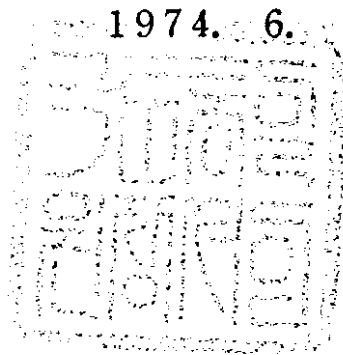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研究責任者： 宋 建 鎬

目 次

才一章	心理戰의 基本原理	3
才二章	政治体制와 心理戰	10
才一節	나치즘의 心理戰略	10
才二節	共產主義의 宣傳	13
才三章	北韓에 대한 宣傳	21
才一節	對北宣傳의 몇가지 前提	21
才二節	敵對的 狀況에서의 對北心理戰	24
才三節	和解時의 對北心理戰	29
才四節	反對心理戰術	35

第一章 心理戰의 基本原理

宋 建 鎬

現代社會는 一般的으로 情報化社會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情報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되어 각종 情報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洪水처럼 社會에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한편에서는 現代人의 生活이 情報를 心理的인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없이 는 일종의 空腹을 느껴 고통이 되는 時代라는 뜻이다. 이러한 時代에 있어 心理戰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없고 각 分野에 있어 心理戰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면 心理戰이 이처럼 활발한 情報化時代인 오늘의 韓國에 있어 특히 南北이 이데올로기를 달리하고 敵對關係에 있는 狀況에서 勝共의 心理戰을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問題로 제기된다.

心理戰이라는 것은 일종 廣義의 宣傳이다. 宣傳의 定義를 알기 쉽게 말하면 他人←個人이나 多數에 관계없이-을 그것-宣傳-없이는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되지 않는 일정한 行動으로 유도하는 活動내지는 技術을 뜻한다. 宣傳의 領域은 國際政治분야 國內의

政黨간 壓力團體의 활동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商業宣傳・宗
敎宣傳 또는 敎育宣傳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宣傳이란 보다더
感情에 호소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의 知性에
만 호소하는 것이라면 그 行動은 宣傳이나 心理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가령 國民學校 어린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태면들이 된다고 가르
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어린이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해도 그것을 心理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心理戰이란 다분히
감정에 호소하는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心理戰效果는 被宣傳者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既存」
감정의 強弱度에 左右된다는 것을 주목할 必要가 있다. 일반적으로
로 宣傳者도 被宣傳者의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감정을 색트케 하
려고 努力하기도 하나 이러한 그의 試圖는 그다지 큰 成功을 견
우기 힘들다. 리틀리는 宣傳이란 「지옥을 天堂으로 天堂을 지옥
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랑 했으나 이것은 宣傳을 과대 평가
한 것이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 宣傳이란 心理的으로 어느정도
그러한 性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가지 方法과 技術을 동
원하여 그 潛在的 心理를 자극하여 目的하는 바 方向의 行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韓國에서와 같이 同族이 敵對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이점이 특히 중요하다:

宣傳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原則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첫째의 原則은 單純化의 原理다. 現代社會는 文明의 고도한 발달로 전문화, 복잡화, 巨大化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社會는 巨大化될수록 大衆이 등장하여 막연한 群衆을 형성한다.

이러한 群衆은 홀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不特定한 많은 群衆속에서 心理的으로 오히려 참기 어려운 孤獨을 느끼며 思考生活에 不安과 초조속에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의견을 主體的으로 가지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依存하려고 한다. 즉 主体性에 대한 信賴를 잃고 개인의 理性에 대한 信賴를 잃는다. 이른바 群衆속의 孤獨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大衆社會에서는 個人이 心理的으로 지극히 약하고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한다. 宣傳에 있어서 單純化의 原理는 이같은 狀況에서는 그 效果가 매우 크다. 즉 복잡하고 論理的 어떤 주장보다 하나의 사실 또는 命題를 누구에게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強力하게 제시하는 方法이다.

(2) 둘째의 原則은 誇張歪曲 反復의 原理다. 現代社會는 고도로 복잡하고 專門化되어 있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社會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는 部分은 지극히 사소하고 대부분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다. 신문, 라디오는 現代人에게 뉴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절대적 影響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有利한 뉴스는 클로즈.업 시켜 알려주고 不利한 뉴스는 잘아묻기고 말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事實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릇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심지어는 어떠한 聲明을 거의 무시해 버리고 必要한 부분만을 拔萃해서 발표하면 같은 聲明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있어서도 A의 경우는 友好的的聲明으로 B의 경우는 敵對的으로 造作해 낼 수 있다.

또 하나는 反復의 原理다. 어떠한 주장이나 보도를 되풀이 반복하거나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특정사실을 目的하는 方向으로 되풀이 선전하면 사람들은 점차 선전의 方向으로 기울어진다. 즉 刺戟은 빈번히 되풀이 될 수록 관심을 갖는 可能性이 커진다는 것이다. 一定한 刺戟을 자주 반복하면 마침내 하나의 信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물론 反復이 모든 사람의 信念을 다 바꿀

心埋現상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同一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感染의 原理가 있다. 또 한편 同一觀의 나 데모를 별리는 方法이 있다. 이와같이 移入의 原理와 밀접 이니 「팻시스트」니 하는 칭호나 應衆寺의 拍手부대를 같이 넣기 -好感·憎惡·恐怖-을 환기 시킨다. 가령 「벨갱이」나 「反動」體的인 어떤 선전의 과정에서 이것저것 方法으로 一定한 內容과 결합시키는 것이 곧 「移入」이다. 이 移入의 과정은 具의 支配的 感情에 어필하고 그들이 가진 既存태도를 선전의 內 않고 그들의 既存태도에 同調 同情하는 方法이다. 이같이 大衆 巧묘히 利用 그것에 입각해서 선전을 벌인다. 大衆과 맞서는 는 大衆이 갖는 既存의 어떤 태도 공포심, 증오심 또는 偏見을 으로 그만큼 要素가 潛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有能한 선동가 大衆이 쉽게 말려 들어가는 데는 그들의 心中에 무엇이 潛在的 效果的 宣傳은 既存의 어떤 태도를 포착해서 그것을 利用한다. 伝力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無에서 有를 만들 수는 없다. (3) 세 짝은 移入·感染·同一觀의 原理다. 앞서도 말했듯이 宣 없다.

수는 없는 것이지만 反復이 知覺과 比例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다른 사람과 類似하다고, 느끼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과 같이 行動하거나 또는 그렇게 行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同一視의 心理는 어떤 個人의 心理內에 自己가 同一視하고자 하는 對象에 대해서 好意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때에만 이와같은 同一視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同一視의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宣傳者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宣傳客體가 宣傳者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것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自己도 그들과 같이 行動하고자 한다면 宣傳의 目的은 그것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同一視」를 환기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方法이 있다.

첫째는 宣傳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같은 사투리나 語法의 말로 생각을 표현해야 하며 둘째는 聽衆의 환경에 관심이 많고 친근하다는 것을 表示해야 하며 (청중의 地方에서 일어난 事件을 利用하는등) 세째 宣傳者가 客體의 진정한 이익 困難, 공포, 희망을 자기의 그것과 同一視하고 그것을 자기의 선전목적과 관련시키는 것등이다. 政治的인 면에서 이러한 同一視 현상은 가령 浮動票가 當選가능성이 많은 후보자에 집중하는 경향등이다.

(4) 배제는 위에 열거한 제原理는 선전활동에 있어서 一方的인 原理가 되나 이밖에 相對方의 선전에 따라서 그것을 부인하는 對항의 原理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가지 原則이 있다.

첫째는 상대방의 선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속에서 矛盾點을 적발해 내는 方法이고 둘째는 相對方의 弱點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方法이며 셋째는 상대방의 공격이 특히 強力히 나올 때는 正面으로 이를 맞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危險하기 때문이다. 배제는 相對方을 不信케 만들어야 한다. 가령 私生活이 추잡하다던지 과거 이러이런한 變節이 있다는 식으로 個人을 중상비방하여 그를 不信케 만드는 方法이다. 다섯째는 相對方의 선전을 사실에 입각해서 격파하는 方法이다. 사실에 의해 반박하는 것 보다는 더 강력한 반격 方法은 없다. 여섯째는 相對方主張을 비웃음으로 戲化하는 方法이다.

宣傳의 일반적 原理로서 以上과 같은 제原則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政治体制의 相異에 따라 이러한 原理를 適用하는 方法이 다르고 力點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 다음에 民主, 共產, 팻시즘의 諸体制에서 선전 특히 心理戰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좀더 具體적으로 말해 보려고 한다.

第二章 政治体制와 心理戰

第一節 나치즘의 心理戰略

나치즘의 心理戰은 宣傳에 관한 역사에 있어서 가장 可恐하고도 가장 교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宣傳은 한말로 크게 세가지 原則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들이 서로 모순되어 있다는 점이 特徵이다. 우선 对内宣傳을 보면 一貫性이 없다는 점이다. 즉 어느類의 칭중에 대해서 말한 것이 어느層의 칭중에 대해 말한 것과 서로 모순되어 있다는 것이 特徵이다. 그들의 선전은 특히 激情과 히스테릭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지극히 냉철하다는 인상을 준다. 묘하게도 그들의 이러한 선전술은 国内에서는 크게 성공을 견우었으나 对外的으로는 失敗를 했다는 사실이다.

히틀러는 近代的 의미로 보아 훌륭한 연설가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거칠고 악쓰듯 했으며 用語는 함부로 쓰고 뚜렷하지 않았다. 그의 글도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데도 그의 연설이나 저서에는 激情과 일견 진지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그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할 가질만한 소질이 있는 사람은 쉽사

리 그의 연설에 영향을 받았다. 「나치」의 주요한 힘의 源泉은 직업을 잃은 수많은 청년층이었다. 나치는 그들의 理性에 호소하기 보다 欲求不滿과 自尊心에 호소했다. 그러므로 나치는 항상 연설로서 즉 大衆집회에서 감정을 흥분 시킴으로써 同志를 획득했다. 나치는 젊은이들에 제복을 입히고 편대를 짜서 자존심을 어느정도 만족시키고 黨綱領을 만들어 規律과 忠誠心을 얻어 냈다.

히틀러의 宣傳術에는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었다.

첫째 民族的自尊心과 個人的自信을 獨逸青年들에 심어주려고 했고 둘째 獨逸民族에 대한 外部의 恐怖感情, 被害意識을 조장하여 「祖國과 民族」에 대한 사랑心理를 조장했다. 세째도 獨逸民族의 優秀性과 使命感을 불어 넣었다. 불상한 獨逸民族 그러나 獨逸民族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世界에 獨逸民族의 우수성이 마침내 들어나고 말 것이다 등등의 心理術을 사용했다.

그의 宣傳을 몇가지 原理로 나누어보면 첫째는 철저하게 感情에 호소했으며 둘째는 항상 누군가 敵을 設定하며 憎惡心을 부채질했으며 그 憎惡心을 어느 敵에 單一化시켜 집중시켰다. 유대民族이 가장 좋은 標的이 되었다. 그에게는 資本主義고 共產主義

고 惡의 背後에는 반드시 尤太인이 있었다. 스키이프고트를 찾아
헤냈다. 敵이 있고 그 敵에 대한 憎惡心이 없이는 히틀러의 激
情的 宣傳은 成功할 수가 없었다. 나치의 宣傳이 出版物보다 라
디오에 보다 더 依存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나치는 對外宣傳에 있어서도 라디오를 조직적으로 利用할
알았다. 그러나 그의 對外宣傳은 國內宣傳과는 달리 그다지 큰
成功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國內宣傳의지와 같이 對外宣傳의
서도 「敵」에 대해 激情的 憎惡心을 부채질한 때문이다.

宣傳의 成功은 사람들의 潛在的 心理를 유도하는 것이며
無의지 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히틀러는 聯合國側에 대해 가령 英國民의 怯弱에 대한 憎惡心 무
스켈트의 대한 反感을 유발하려고 그의 絶렬한 공격을 한 것은 큰
失手였다. 英國民은 오히려 나치의 絶렬한 怯弱攻擊에 히틀러에
대한 反感과 怯弱의 怯弱 信賴感을 더욱 무척히 했다.

宣傳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宣傳의 相對인 群衆의
現實적인 感情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敵國
에서 거의 恐怖心을 갖지 않을 만큼 好戰的이거나 信心에 불타 있
을 때에는 그러한 敵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
또 敵에게 梅望의인 어떠한 心理상태를 심으려고 할 때 만약

宣傳者가 주의깊고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敵國民은 絶望的이라는 점에서 아주 挫折하기 보다 오히려 決死的인 저항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나치는 처음에 너무 큰 軍事的 成功을 건우어 지나치게 自信과 樂天的 경향으로 빠져 宣傳의 有効性を 過信한 흠이 없지 않았다. 우선 英글로색슨의 民族性을 이해하지 못하는데다 宣傳의 有効한 展開를 위해서는 때로 真理를 수호하고 事實을 어느정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선전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第二節 共產主義의 宣傳

共產主義의 宣傳은 본질적으로 맑스·레닌主義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社會主義體制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팻시즘型과 다르다. 팻시즘型은 資本主義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共產主義의 경우와 다르다. 팻시즘宣傳의 特徵은 宣傳의 모든 미디어와 担当을 支配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中央集約的이다. 共產主義宣傳도 中央集約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形態를 보이고 있으나 팻시즘宣傳이 下向一辺倒的인데 비해 이들은 上下 相互 交流的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上部에서 下部로 선전할뿐 아니

라 下部의 의견을 上部에 반영시키고 이것을 上部가 吸收하는 形式을 取하고 있는 점이 이들의 特徵이다. 地方의 각 支部黨의 의견을 종합해서 黨의 의견을 결정하는데 反映시킨다는 形式을 取하고 있는데서 相互交流的이라는 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또하나 팻시즘은 成員상호간의 橫的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인정되어 있지 않고 制度的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共產主義宣傳에서는 橫的 커뮤니케이션이 용인될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 되고 있다.

共產主義宣傳은 國際的이라는 점도 팻시즘하고는 크게 다르다. 팻시즘이 對內的宣傳에서 成功을 걸은 반면 國際的宣傳에서 成功하지 못한 것은 팻시즘이 강한 民族主義的性格을 지닌 때문이다. 그러나 共產主義宣傳은 어떠한 民族, 社會를 막론하고 國際的 규모에서 宣傳이 可能하다. 共產主義는 理念으로서 또한 世界觀으로서 教育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신문, 라디오 그밖에 集會 또는 소 규모討論에서는 물론 國民학교 중, 고교에 이르기까지 教育面에서도 教化시키기에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는 팻시즘과 같이 그들이 다같이 獨裁體制를 갖추고 있고 方法이 야만적이며 殘忍하고 侵略的이며 世界支配를 꿈꾸고 있고 兩者가 다같이 個人에 대해 尊重할 줄 모른다는 점에서

똑같은 體制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共產主義宣傳이 나치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끝 없이 되풀이 되는 슬로건, 大衆集會이나 「自發的」示威運動의 조직화, 「敵을 하나로 單一化시키는 것」등의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 兩者란에는 위에서도 비교한 것처럼 根本的인 差異점이 많다.

특히 나치의 宣傳은 의식적으로 거짓말과 虛偽를 利用하고 있으나 共產主義에서는 적어도 自己들 표준 또는 價值觀에서는 언제나 「真理」 「眞實」을 말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 다르다. 共產主義는 모든 黨員들에게 거의 宗教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内部에 異見이 存在하는 것을 許容치 않는다.

따라서 共產主義는 道德은 물론 映画, 演劇, TV, 라디오, 文学作品, 美術音樂에 이르기까지 共產主義의 教理와 目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만이 허용된다. 그러한 目的을 위해서 제작된 藝術활동만이 참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共產主義宣傳에는 몇가지 原則이 있다.

첫째 그들은 經濟的 政治的 社会的인 이것저것 不滿을 최대한으로 利用하는 것을 그 內容으로 삼는다. 貧困이나 災厄이 있는 곳에 받드시 共產主義勢力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래동안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低賃金에 苦生을 하고 있었다 하는 社會에서 共產主義社會에는 착취가 없고 무두 잘살며 敵은 언제나 착취 계급이라고 선전할 때 가난한 層은 어렵지 않게 共產主義에 共鳴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完全 雇傭이나 繁榮期에는 이러한 선전선동은 그다지 說得力이 없다.

가장 큰 共產主義의 強敵을 社會福祉政策이며 完全雇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둘째의 宣傳內容은 平和와 民主主義와 安定된 生活에 대한 호소선전이다. 共產主義만이 民主主義를 애호하고 平和를 사랑한다는 式의 주장이며 선전이다. 그들은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二元說法」이라는 새 技術을 발천시켰다. 즉 그들의 여러 用語는 西歐와 文字는 같더라도 概念이 전혀 다르다. 가령 「平和」라고 할때 그것은 共產社會의 상태를 말한다. 資本主義社會에는 투쟁이 있을뿐 安定이 없다는 것이다. 「民主主義」라는 것은 共產主義의 諸政策을 그들의 代表들이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進歩的」이라는 것은

共産主義에로 志向하는 것을 의미 하며 「解放」이라는 것은 資本主義體制안의 사람들을 共産化시키는 것을 뜻한다.

「平等」이라는 것은 階級을 없앤다는 뜻이며 「帝國主義」란 資本主義國家를 지칭하며 「平和愛好國」이란 물론 共産主義國家를 지칭한다. 北韓과 對決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상투적인 宣傳의 本質을 똑똑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自由主義的 宣傳

이 型에 속하는 宣傳은 民主主義의 傳統이 긴 英國과 美國이 代表가 된다.

自由主義型 宣傳의 전형은 1次大戰 當時의 英國의 신문과 放送을 例로 들 수 있다. 戰爭에 진후 廢帝 카이제르는 「나는 戰鬪에서 진것이 아니라 더 타임즈 紙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근래에 와서는 美國에서도 신문과 방송 즉 여론의 힘을 반려 國際政治에 利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自由主義型의 宣傳內容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는 既存의 政治的 價值와 傳統 制度에 대한 強調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同調的인 心理狀態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일종의 保守的인

宣傳方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例를 들면 市民的인 獨立精神을 傳統으로 하여 自由와 平等을 根本으로 삼는 이데올로기다. 바꾸어 말하면 「美國的生活樣式」의 擁護와 선전인데 이것은 소련의 共產主義的生活樣式과 對抗하는데 큰 武器가 된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이러한 宣傳은 既存의 政治的 價值體系를 반복 강조할 必要性이 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이데올로기와 價值體系에 對抗해서 승리를 건우려면 既存價值를 단지 반복 강조하고 선전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既存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새이데올로기에 對抗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民主諸國에 있어서의 宣傳활동의 어려움이 있다.

自由主義的 宣傳의 典型을 例로 든다면 2次大戰 當時의 英國BBC 放送을 손꼽을 수 있다. BBC는 다 아는 바와 같이 팻시즘 陣營에 까지 높히 信賴를 받고 있었는데 BBC에는 두가지 原則이 있었다. 하나는 「眞實을 尊重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一貫性을 유지한다는 점이었다. 알기 쉽게 말하면 前者는 일반 청취자에게다 알려진 共認의 사실과 一致하지 않는 어떠한 事實도 放送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後者는 어떤 나라에 말한 사실과 矛盾되는 말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BBC

는 이 二原則을 충실히 지켰다. 大戰이 터진 처음에는 英國은 분명히 戰勢가 不利했다.

나치는 저들이 마치않아 勝利하리라는 것을 되풀이 주장했다. 그러나 英國은 자가들이 적지 않은 打撃을 받고 있는 사실을 承認했으나 나치 역시 큰 打撃을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 戰爭은 오래 계속되지만 勝利는 결국 聯合國側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가까운 時日안엔 勝利가 확실하다고 주장한 나치 宣傳과 싸움은 長期戰化하되 최후의 勝利는 聯合國側에 있다고 주장한 英國의 선전사이에서 싸움이 싸움이 長期化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英國에 勝利를 기대하게 되었다. 戰爭이 長期化할 수록 나치宣傳의 說得力은 점점 약화되어 갔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밖에 英國軍의 手中에 있는 나치포로들의 名單을 한사람 한사람씩 발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흥미사아 들던 英國을 몇년후에는 몇百萬사람들이 칭위하게 되었다. 英國이 成功한 것은 眞實을 尊重한 것과 矛盾이 없이 一貫性있는

放送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 있었다. 生命力이 길고 장기적 안목
에서 가장 효과적인 宣傳은 그 宣傳이 어느정도의 眞實性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第三章 北韓에 대한 宣傳

才一節 對北宣傳의 몇 가지 前提

지금까지 心理戰의 一般原理의 具體的 展開에 있어 說시즘, 共產主義, 民主主義의 세 가지 型의 宣傳戰에 關係해서 제각기 그 特徵을 比較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韓半島에 있어서의 宣傳戰이란 어떠한 特殊性이 있으며 具體적으로 어떻게 把握해야 할 것이냐 라는 問題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韓半島는 南北으로 國土가 分斷되어 오래동안 共產·民主로 敵對하고 있어 치열한 각종 宣傳戰을 벌이고 있다.

七二年 南北共同聲明에 이어 南北赤十字會談, 그리고 大畵的인 相互交流가 시작되는 듯 하더니 七三年부터 關係가 惡化되기 시작 최근에는 共同聲明發表 以前보다도 오히려 더 緊張度가 激化된 듯한 感覺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對北心理戰도 한층 積極적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를 想定할 수 있다. 하나는 敵對關係가 惡化되었을 경우이고 또 하나는 緩和되었을 경우의 心理戰術을 어떻게 展開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제기 된다.

그러나 激化되었을 경우나 緩和되었을 경우를 莫論하고 對北心理戰은 兩面性을 띠우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다. 즉 對北心理

戰이라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對南心理戰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對北心理戰이란것이 특별히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對北인 동시에 對南(內)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對北과 對南을 분리해 생각하거나 다른 問題가 아니라 聯關시켜 생각해야 하며 한가지 問題의 兩面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心理戰을 展開하는데 있어, 留意해야 할 韓國的 特殊性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첫째, 南北은 異民族이 아니라 같은 民族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民族的 面에서는 서로가 전혀 敵對感을 갖고있지 않다. 오히려 一千万離散家族을 찾기 위해 赤十字會談이 열리고 있는바와 같이 南北間에는 수많은 同胞들이 父母兄弟이면서도 떨어져 살고 있으며 敵對的이기보다 오히려 限없는 그리움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南北의 敵對關係는 순전히 共產·民主라는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생긴 것이다. 對決이 오로지 이데올로기의이라는 점을 분명히 認識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南北간의 競爭은 결코 단순한 心理戰으로서만 끝날 수 없다. 南北은 體制와 體制의 競爭이요. 優劣을 겨루는 것이다. 어느 宣傳이나 다 그러하지만 南北간의 宣傳戰은 體制의 優劣이라는 現實的 側面이 다른 경우와 달리 특히 크게 클로즈·업된다.

對北宣傳에 있어 留意해야 할 점은 첫째, 北韓側의 執權層과 民衆— 一般同胞와의 사이를 嚴格히 구분 식별해야 한다. 北韓에 살고있는 同胞들 전부가 우리의 敵인 듯이 몰아서 敵對視하는 태도는 止揚되어야 한다. 이 점 東·西獨間 關係에서 參考되는 점이 많을 줄 안다. 그곳에서는 東獨사람들을 「東獨의 우리 독일인」 또는 「同胞」라는 말로 호칭하며 東獨共產主義者들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다만 東獨의 執權層에 대해서만 共產主義者라고 부르고 있다.

西獨의 이와같은 態度는 비록 이데올로기의 相異로 對立은 하고 있으나 같은 獨逸民族이라는 긍지를 잊지않는 態度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對決은 하고 있으나 누군가가 東獨을 철썬으면 뚜렷하게 못마땅한 表情을 짓는다. 獨逸民族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때문이다. 東베를린의 建設狀況이 보잘것 없다고 外國人이 말하면 저쪽도 獨逸人이 살고있는 곳인데 왜 建設이 보잘것 없느냐는 抗議를 한다. 이데올로기에 앞서 民族意識때문이다. 六·二五라는 同族相殘을 겪은 우리의 事情을 獨逸과 同一視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다.

그러나 같지 않다는 점만을 홀로즈·업 시키고 같은점은 外面하

는 경향은 止揚되어야겠다. 그런 점에서 「괴뢰」라는 말은 止揚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

七・四共同声明후 한때 이 「괴뢰」라는 말을 서로 쓰지않기로 合意된듯 전해졌으나 최근 다시 쓰게 됐다. 당시의 李厚洛 서울측 共同委員長의 말대로 하늘보고 칩쌀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敵對關係가 緩和되었을 때는 「北韓」이라 호칭했다가도 激化되면 또 「괴뢰」라고 하는것은 民衆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感情을 미치는 영향도 생각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對決의 속에서도 남이 볼 때 堂堂히 對決해야 한다. 北韓徒黨은 그렇지 않다. 그者들만은 特別이다 라는 말이 자주 들리나 그것은 六・二五를 겪은 四十代 以上에게나 통하는 感情이지 三十代에게는 理解되기 어려운 감정이다.

才二節 敵對的 狀況에서의 對北心理戰

對北關係에 있어 몇 가지 特殊性을 머리에 두고 心理戰術의 如何를 생각하는것이 必要하겠다. 첫째는 南北이 同族이라는 事實, 따라서 北韓을 그곳 指導層과 一般과를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 歸着點은 體制의 優劣로서 勝敗가 定해질 것이라는 점이 對北 心理戰을 전개하는데 앞서 念頭에 두어야 할 前提條件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心理戰術을 具體化하는데 관련될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北韓에 心理戰을 強化한다는 것은 별 意味없는 辱說을 그곳 執權層에 퍼붓는 것이 能事가 아니다. 이점 北韓執權層은 韓國側 以上으로 야비한 辱說로 시종하고 있으나 그들이 비열한 手段을 쓴다고 여기에서 같이 應하는 것은 賢明하지 못하다. 이점에 관해서 「린드리·프레이저」(Lindley Frazer)는 「宣伝」이라는 冊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

「對敵宣伝에 있어 신랄한 말투나 태도를 取하는 것은 때때로 오히려 致命的의 失敗가 된다는 敎訓을 窺見할 수 있을 것이다. 英國 BBC放送이 히틀러에 대해서 한 것처럼 宣伝者는 간혹 敵國의 指導者에 辱說을 퍼부을 必要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指導者를 아주 하찮은 形편없는 작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할 때 만약 청취자가 자기들 指導者에 그런面이 있다고 생각지 않을 경우 이런 辱說은 거의 아무런 效果가 없을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일종 야비한 辱說은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을 알아야 하겠다. 결렬한 辱說은 異民族의 指導者에 대해서는 큰 効力이 있겠으나 同族간에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心理戰의 対象은 사람이기에 앞서 北韓의 制度가 一次的으로 批判의 対象이 되어야 한다. 敵側의 指導者를 辱하고 비난하는 것은 共產主義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制度를 強要하고 있다는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共產主義制度를 住民들에 強要하는데 있어 이러저러한 못된짓을 했다는것을 宣傳의 材料로 삼는 것은 研究해 볼만하다. 強硬한 心理戰이라고 해서 北韓의 金日成에 辱說을 強化하는 것이 全部는 아니다. 制度에 대한 矛盾點을 強力하게 파헤치는 것이 効果的일 것이다.

心理戰의 強化가 制度아닌 특정인에 대한 辱說을 더욱 強化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相對方에서도 똑같은 아니 그以上の 같은 반격이 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비방중상은 結果적으로 別效果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의 與件에서 전개할 對北心理戰은 強力한 경우나 緩和됐을 경우를 다같이 念頭에 두고 戰術을 짜지 않으면 안된다. 強力한 心理戰과 緩和된 心理戰은 한 가지 問題의 兩面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對北心理戰을 아무리 激化시키더라도 激化된 狀況에서의 對北

作戰이 緩和됐을 경우의 作戰과 論理的 一貫性を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對北心理戰을 격화시킬 必要가 있다고 해서 마구 辱說만을 퍼부었다간 만약 南北關係가 다시 緩和되던가 또는 종전과 같은 辱說을 어떤 協約에 의해 하기 어렵게 되면 몇가지 困難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는 그간의 격렬한 辱說로 北韓首腦層에 대한 一定한 이미지가 國民間에 形成될터인데 그런者들과 平和共存을 하자던지 무슨 協定을 맺자고 主張할때 그런 者들을 어떻게 믿으며 더우기 「유엔」에 同時加入이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國民들이 가지게 될것인데 이들을 어떻게 納得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提起될 것이며 또하나는 만약 辱說의 主要對象人物이 죽었을 경우 새로 등장하는 首腦를 國民들이 惡質的人物이라고 믿기까지 또 새로운 宣傳이 必要해진다는 難點이 있다. 對北心理戰은 政策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七·四共同聲明, 六·二三聲明 또는 그밖의 對共政策과 對北宣傳戰간에 어떠한 論理的 矛盾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宣傳과 政策은 表裏一體關係에 있어야 하며 그것이 아무 關係없이 또는 서로 矛盾된 様相을 보여서는 안된다. 政策的 急變으로 지금까지의 對北宣傳이 當惑하거나 困難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

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對北宣傳이 別途로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同時에 이곳 韓國民에 대한 對內宣傳하고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敵對時에 있어서나 和解時에 있어서나 對北宣傳은 단지 사람에 대한 攻擊에 그칠 일이 아니라 北韓의 특이한 「共產主義體制」에 대한 공격, 폭로, 반대로 나타나야 한다. 어디까지나 共產主義體制에 대한 反對非難을 中心으로 宣傳을 펴야 한다. 한例로 六·二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들이 南韓에 와서 무슨짓을 했는가 그러한 行動이 共產主義와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 金日成에 대한 공격을 할때도 따라서 共產主義가 그를 人間으로서 어떻게 變質시켰으며 그가 지금 北韓에서 벌리고 있는 唯一思想, 金日成主義라는것이 民主主義社會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理由가 무엇인가를 具體적으로 說明해야 한다.

敵對時의 宣傳은 따라서 宣傳의 素材가 六·二五의 참극속에서
나 一·二一事態나 그밖의 武装共匪같은 事件이 될 수가 있겠고
학살같은 만행도 그들의 階納的 증오論과 관련시켜 그 만행이
결코 우연한 만행이 아니라는 점을 說明해야 한다. 막연히 그
들을 공격한다던지 金日成이 사기협잡꾼이니 色魔니 하는 식으로

그를 共産主義를 떠나 人間的인 面에서 惡魔같은 人間이라고 辱해
놓으면 後日의 새 段階에 있어서의 對北關係에 차가당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가 人間으로서도 惡魔的이고 사기꾼같은 惡質이
라면 그런者와 七·四共同聲明을 발표하고 不可侵協定の 條約, 또는
유엔同時加入提議같은 것을 國民에 說明하기가 難處해진다. 그러므
로 金日成 一黨을 공격할 때에는 그를 철저한 共産主義者로서 우
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思想의 敵으로서 공격하는것이 說
得力이 있는 對北宣傳이라는 것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敵
對時의 反共宣傳은 이같이 共産이 데올로기, 制度, 階級鬭爭論과 關聯
시켜 六·二五를 비롯해 그들의 가지가지 만행을 說明하면 될 것
이다.

才三節 和解時의 對北心理戰

지금까지의 對北宣傳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단순했다.
六·二五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充分한 宣傳效果를 건우기도 그다지
큰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狀況이 크게 달라졌다. 六·二五를 자기 經驗을
통해 상기할 수 있는 世代는 四十代가 넘어야 하고 三十代는 추

은 겨울날 피난을 다닌 程度의 記憶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三十代以下の 젊은世代에 아무리 六·二五를 상기 하라고 외쳐보아도 그들은 이미 六·二五를 體驗的으로 理解하지 못한다.

오히려 三十代以前の 많은 젊은이들중엔 우리와 다른 共產主義體制下的 北韓事情에 好奇心의 눈으로 關心을 가지고 있는 層이 있는 지도 모른다. 더욱기 지금 政府의 對共政策은 蘇, 中共, 東歐하고는 交流의 門戶를 開放하고자 하고 있고 한편 北韓에 대해서는 유엔同時加入, 不可侵協定締結같은것을 提議하는 한편 또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反共攻勢를 強하게 展開하고 있어 一見 矛盾되는 듯이 보이는 狀況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調整 消化하면서 對北宣傳戰을 펼것인가가 하나의 커다란 問題라고 해야 하겠다. 오늘의 狀況은 北韓住民에 對해서나 對內國民에 對해서나 說得力있는 宣傳을 展開하는데 있어 매우 멜리케이트한 여러 問題點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狀況은 對北關係가 단순한 敵對期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和解期라고는 더욱 보기 어려운 지극히 微妙한 關係라고 보는것이 옳을것 같다. 한말로 強하게 敵對하고는 있으나 外面은 하지않고 얼굴을 쳐하고 이야

기하며 기회가 생기면 다시 交流도 해야하는 二重性을
더고 있는 狀況이라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리고 앞
서도 약간 指摘했듯이 對共心理戰이 단지 對北韓用이라고
만 보아서는 안되고 對北 對南(內) 다같이 兩用의 宣傳이 되고
있다는 점을 念頭에 두어야 하겠다.

和解時에 있어서는 体制의 比較가 더욱 뚜렷해진다. 敵對時의
南北關係는 다분히 感情的 경향이 짙으나 和解時라면 어느정도의
交流도 한편에서는 展開되고 있는 時期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對北宣傳은 그 注力을 우리의 体制的 優越性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民主社會라는 것이 어떤것인가를 北韓民에 알려야 한다. 그
들은 日帝統治에서 즉각 共産治下로 들어갔으므로 民主社會라는 것
이 어떤것인가를 모른다. 그러므로 自由가 무엇인가 日常生活에서
北韓生活과 어떻게 다른가를 具體的으로 說明해야 한다. 누구나
자기의 私生活에 있어 자기가 원하는대로 그날그날을 살아갈 수
있고 家庭에서 妻子와 어떻게 즐겁게 生活할 수 있으며 日曜日엔
낚시도 가고 등산도 하고 혹은 旅行도 하고 願하면 낮잠도 잘
수 있다는 生活소개 그리고 外國의 소식도 좋은소식 나쁜소식 할
것 없이 모두 알 수 있고 外國에 自由롭게 旅行할 수 있으며

원하면 아무 冊이나 읽고 民主主義社會라고 하지만 民主主義를 꼭 지지한다 반대한다고 신경을 쓸 必要도 없다는 生活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對北宣傳은 특히 日常生活의 소개에 注力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 「린드리·프레이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이란 자기를 向해서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방송보다도 자기들에 向해진 放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放送에 대해 더 信賴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들에게 向해진 放送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은 누구나 警戒心을 갖는 법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법이다. 사람의 心理란 자기들에게 向해진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라디오를 도청할 때에는 거의 아무런 警戒심도 갖지않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프레이저의 말은 우리가 對北宣傳을 할 때 깊이 음미해볼만한 말이다. 우리의 對北放送은 누가 들어도 너무나 意識的이라는 인상을 준다. 선전을 위한 선전, 즉 욕하기 위한 욕, 공격하기 위한 공격같은 인상을 준다. 共產主義者들은 우리에게 宣傳할 때 辱說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악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태연하고 日常的인 對話로 北韓同胞들에 말을 해야 한다.

거의 宜伝이라는 感を 주지 말아야 한다. 나치가 악을 쓰고 욕
을 퍼붓고 있을 때 BBC가 침착하고 점잖고 시종일관하게 對獨
放送을 계속해서 國際宜伝(放送)戰에서 나치를 완전히 압도 했듯
이 우리의 對北放送은 침착하고 品位를 갖고 그들에 응수해야 한
다.

民主社会에 있어 가장 強力한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는것은 商業
宜伝이다. 商品을 살 생각이 없는 消費者에 물건을 사고 싶은
心理를 일으키게 하는것이 商業宜伝이다. 따라서 自由社会에서 가
장 교묘한 心理戰은 商業宜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商業宜伝
은 宜伝이라는 心理的 負擔感을 주는 印象을 조금도 풍기지 않는
다. 消費者의 心理에 強要 아닌 지극히 自然스러운 유혹 내지 接
近을 한다.

和解期에 있어서의 對北心理戰은 商業宜伝에서 보다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放送의 경우 말태도 역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北韓放送은 같은 우리나라 말이기는 하나 語調가 戰鬪的이며 악을
쓰듯 音聲을 높여 말한다. 아마도 北韓同胞들은 이 戰鬪的이며
악쓰듯 말하는 이른바 北韓式 放送의 소리에 食傷하고 실증을 느
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心理狀況속에서 사랑스럽고 속삭이

듯 平和와 幸福에 가득찬 서울의 放送에 접하면 무소리만 들어도 鄉愁에 젖는 듯한 心情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和解時뿐 아니라

敵對時에 있어서도 오히려 北韓放送이 악을 쓰고 우리에게 욕설을 퍼부우면 부울수록 서울의 對北放送은 상냥하고 부드럽고 속삭이듯 하는 對北心理戰을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宜伝이란 그것없이 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어떤 생각 또는 行動을 하도록 유도하는 技術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宜伝客체에 潛在的인 어떤 要因이 없이는 단순한 宜伝만으로 客체의 共感이나 支持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對北放送 또는 크게 보아 宜伝은 동시에 南韓國民도 接하게 되는 放送(宜伝)이라고 보아야겠는데 南韓에서도 큰 放送效果를 기대하려면 共產主義를 反對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社會體制를 守護해야 겠다는 信念이 들만큼 自由와 民主主義의 伸長에 努力하는바가 있

어야겠다. 共產主義를 反對한다고 하면서 共產主義와 對照的인 民主主義 價値를 이땅에 實現하는 努力에 誠意를 보이지 않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共產主義와 對決하여 우리가 優位에 설 수

있고 또 모든 國民들이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살고있는 이 體制를 지키겠다는 決意를 굳게 갖게 하려면 自由와 民主主義를 伸長하는

것이 急先務다.

才四節 反對心理戰術

民主主義의 心理戰은 商業宣傳과 가까운 形態로 하는것을 效果的으로 생각하나 共產主義宣傳은 특히 北韓의 宣傳은 戰鬪的이며 선동적인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戰鬪的인 선전에 실증을 느낀 共產治下의 사람들이 甘美로운 선전에 매력을 느낄 수 있듯이 상냥하고 自然스러운 商業宣傳에 익숙해은 사람은 때로 선동적이며 宣傳에 好奇心을 느끼고 매력조차 느낄때가 있다. 우리의 民主主義的 形態의 宣傳과 北韓의 선동적인 宣傳과의 關係가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측의 宣傳을 하는것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反對宣傳을 할 必要가 있다. 즉 北韓측의 우리에게 대한 宣傳의 內容을 평소 면밀히 추적 分析하여 그들의 宣傳의 矛盾點을 지적 폭로하는 方法이다. 그들의 宣傳은 일견 지극히 선동적인 만큼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內容을 추적, 分析해 보면 空虛한 言語의 반복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發見한다. 아무런 具體性도 없이 거의 똑같은 言語의 羅列임을 발견한다. 뿐만아니라

처음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에 一貫性이 없고 그때그때의 形便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기도 하며 그 宣伝이 虛溝에
차 있으며 기만에 가득차 있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宣伝이 얼마나 믿을것이 못 되는것인가를 폭로하는 對抗宣
伝을 할 必要가 있다.

최근 内外通信이 이와 비슷한 구실을 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더
욱 대규모로 強力하게 벌리자는 것이다. 그들은 무슨 政策이나
行動으로 나올때에는 의례 그것과 관련된 聲明이나 論說을 장황^{장황}
게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行動이나 政策을 이해하는데 있
어서는 우선 이런 聲明이나 論說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으며 이
것을 면밀히 分析하는데서 그들의 底意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서 관계 當局에서는 그들의 政策聲明이나 論說을 年次的으로 分類
하거나 또는 問題別로 分類하며 그들의 主張이나 言動이 처음과
뒤가 어떻게 自家당착에 빠져 있는가를 지적 폭로할 수 있다.

1930年 초반에 獨逸에서 나치와 共產黨 사이에 死生을 결단하는
宣伝戰을 교환하고 있을때 나치는 이 對抗戰術을 면밀하고도 저극
적으로 전개하며 獨逸共產黨의 선전을 分析 暴露하여 勝利를 걸우
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다.

가령 北韓의 對南統一攻勢는 꽤 緊요하게 계속되어 왔다. 八·一五해방과 더불어 그들의 統一攻勢는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攻勢는 그때그때의 狀況에 따라서 그 主張에 差異點이 있다. 그들은 항상 積極적인듯한 主張을 한다. 그러나 면밀히 그 主張을 分析해보면 實現不可能한 主張을 하고 있다는 것을 發見한다. 남이 보면 아주 統一에 積極적인듯이 보이나 統一事業이란 하자고 해서 하루아침 사이에 되는것이 아니고 段階的으로 一步一步 接近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西獨과 東獨의 接近努力이 그 典型的例라 할 것이다. 實現可能性있는 方法보다 一步 앞선 方法을 내세우는 것은 남에게는 熱意있는 듯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그럴 생각이 없을 때 北韓측이 상투적으로 使用하고 있는 일종의 기만전술이다.

따라서 그들의 對南宣傳의 資料를 分野別로 分類해서 언젠는 무슨 소리를 하고 언젠는 무슨 소리를 하고 또 언젠는 무슨말을 하고 行動面에서는 이런 矛盾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分析 拂로할 必要가 있다.

한例로 그들이 南北간의 家族찾기를 열렬히 願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쪽에서 赤十字會談을 提議하니까 여러가지 탈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던지 省黨을 위한 친척간의 相互訪問조차 거절한
점이라던지 民族을 마치 자기들만이 사랑하는듯이 떠들면서 武裝
間諜을 南派시켜 무고한 良民을 학살한 사실등 그들의 言行不一
致는 對抗宣傳을 위한 좋은 例가 될 것이다.